

전남도, 새 정부 공약 '기후에너지부' 유치 시동

김 지사 "에너지수도 전남에 유치" '한전·전력거래소' 혁신도시 최적지 해상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선도 '전남형 에너지 전환' 국가정책 확산

전라남도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전남 유치에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과 관련,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수도로서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후위

기가 미래세대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분절된 책임 구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신재생에너지 인허가만 해도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지자체가 각기 따로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기업은 불확실성에 발목 잡히고, 주민은 소외되며, 투자는 지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합해,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 돼야 하고, 전남도가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남은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기후위기 최일선에서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후리더십을 전 세계에 전명할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할 여수국가산단·묘도 CCUS와 여수·광양 만권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해양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블루카본 바다숲 조성 등 농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에는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 등 에너지공기업이 입주해 협업에도 유리하다.

아시아 태평양 최대 3.2GW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전국 최초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까지 수립하며, 에너지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전남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이익공유제 등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1176GW로 전국(7333GW)의 16%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

다.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태풍, 가뭄 등 기후위기의 최일선에서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같은 역량과 의지를 갖춘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실행 거점이자, 최적 입지"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과감한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최전선 현장에서 답을 찾아온 전남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에너지부' 조직 설계에 지역 목소리를 담고, 전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국가정책으로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유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2030년까지 기술·미래 인재 81만명 양성

'2030 인재양성전략 보고회' AI·반도체 등 산업인력 육성 강 시장 "인재 키워 품요롭게"

광주광역시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의 성장을 이끌 산업기술인재와 미래교육 기반 인재 등 총 81만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1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교육계, 경제단체, 산업계, 공공기관 등 87개 기관·단체와 함께 '2030 광주 인재양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인재와 함께 발전하는 광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광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주 투자를 유인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보고회에는 광주시·자치구·의회·교육청 등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해 지역대학교 교육기관, 경제단체, 금융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87개 기관·단체에서 25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10개 교육기관과 기업,

교육생 대표가 영상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끌 인재양성 노력과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정제평 호남대학교교수협력단장, 선미정 광주시 대학정책팀장, 서형섭 광주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이 △우수한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등 81만명의 인재양성을 통한 광주발전을 다짐하는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17개 기관·단체 대표들이 결의서에 서명했다.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LIGHT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인공지능(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을 이끌 산업기술인력 35만명 △미래교육도시 기반 확산을 위한 인재 46만명 등 오는 2030년까지 총 81만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초·중·고부터 대학·대학원, 실무 전문으로 이어지는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인공지능·디지털·반도체·문화콘텐츠 등 광주시의 핵심 전략산업에 연계한 교육·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인재-기업의 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열린 '2030 광주 인재양성전략 보고회'에서 81만 명의 인재양성을 통한 광주발전을 다짐하는 공동결의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를 반영해 맞춤형 실무역량을 높인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이 부족해 당장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채용형 인턴십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산학연 거버넌스체계를 강화하고, 광주에서 배우고 창업하고 정착하는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실현을 위한 시범 사업인 광주 우수인재와 혁신기업의

매칭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과거의 기업들은 '누가 광주까지 가서 인재를 양성하느냐'는 말을 들었으나 이제 기업들은 '인재 때문에 광주에 간다'고 말한다"며 "300여개의 AI기업이 광주를 택했고, 기업들은 광주를 택한 동인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인재라고 입을 모은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이 인재를 찾아 광주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일궈온 성과를 돌아보고 2030 인재양성 전략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산학연 87개 기관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LIGHT 인재'를 함께 키우자"고 강조했다. 정성아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